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7. 27 | IBKS Research

Insight Monthly 8

2026



반도체

가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AI/인터넷/게임

화학/정유

유통/식자재

유틸리티

통신

자동차

2차전지

건설/부동산

제약/바이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7월	8월	9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삼성전기, 아모텍
IT/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선익시스템
AI/인터넷/게임				NAVER, 크래프톤
화학/정유				S-Oil, 롯데정밀화학
유통/식자재				현대백화점, GS피앤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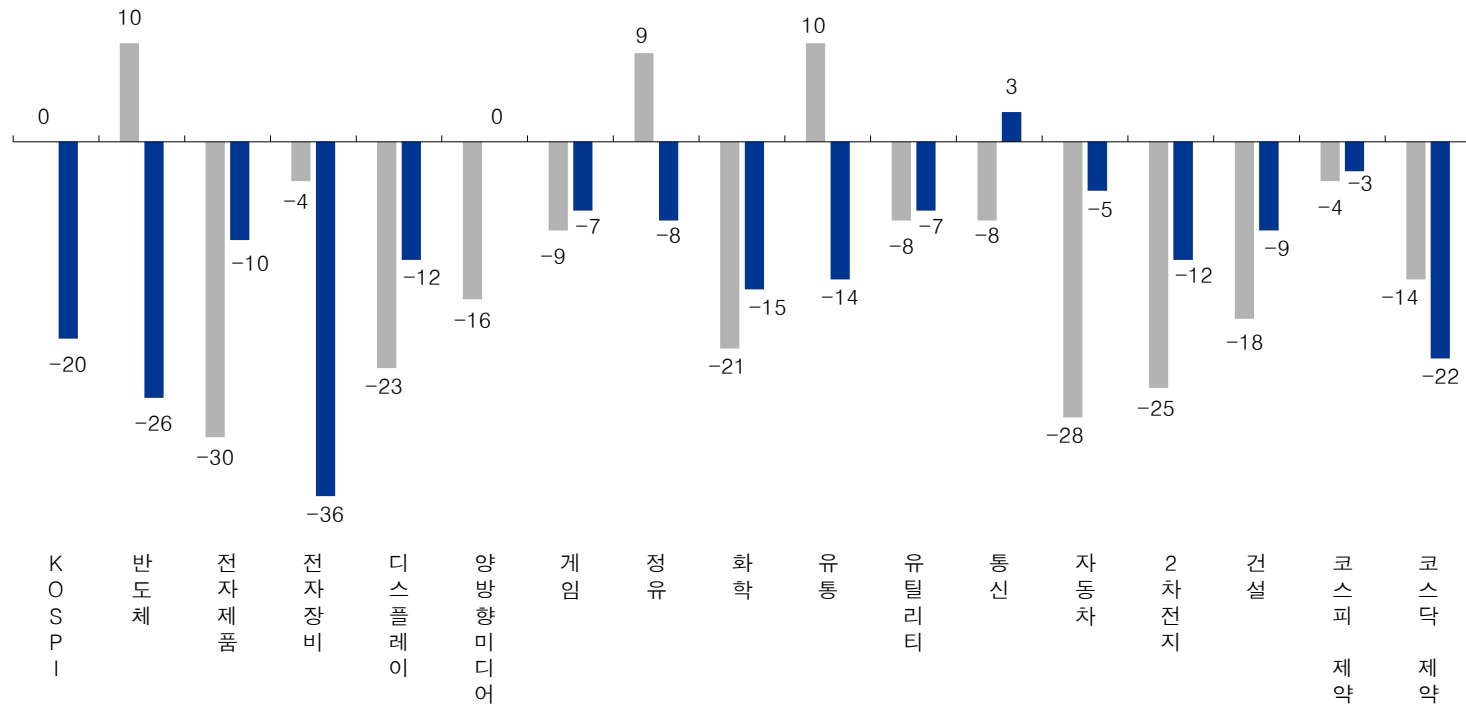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7월	8월	9월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통신				SK텔레콤, KT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삼성SDI, 더블유씨피
건설/부동산				삼성E&A, GS건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에스티팜

업종별 수익률

(%)

■ 6월 수익률 ■ 7월 수익률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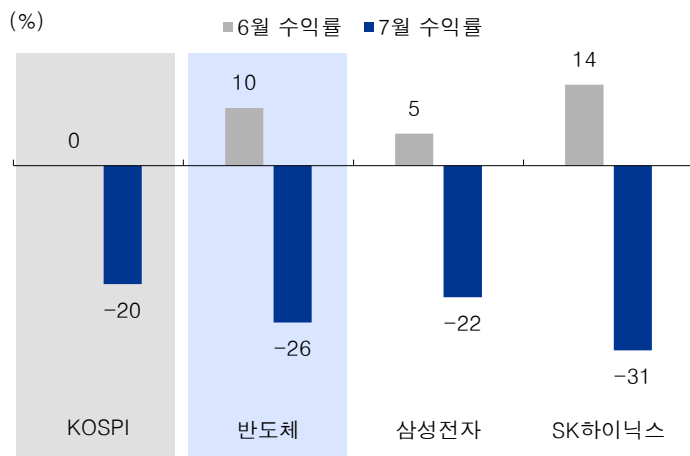


IT/반도체

7월

성과 분석

- 7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26.3%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6.5%p 하회
- 기대에 부합한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에도 Apple의 중국산 메모리 허가 요청, Meta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등 노이즈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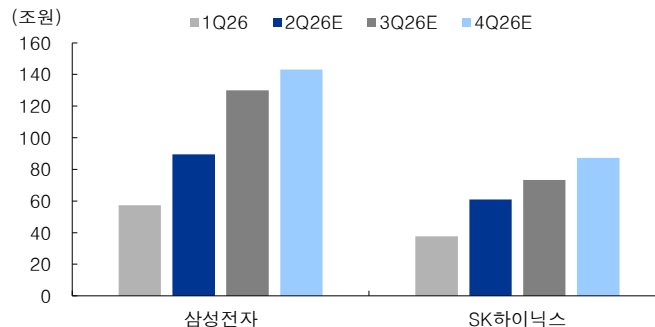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메모리 업종 주가 급락

-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センチ멘탈 이슈로 해석
- 편더멘탈 관련 노이즈(Kimi3 등 중국산 저가 AI 모델 확산, 가격 상승률/영업이익 증가율 둔화)에 예민한 반응. 과거와는 다른 수급 상황으로 인식
- 외인 수급, 레버리지 ETF 반대 매매는 진정 국면에 진입
- 중국 AI 모델은 컴퓨팅 파워 부족을 절감하고 있고, AI 모델 개발에 메모리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공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자료: 각 사, IBK투자증권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8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업황과 상관없이 부진했던 주가 회복 기대
- 과거 사이클 Peak 전조였던 성장률 둔화, 가격 상승률 둔화는 더 이상 업황 둔화를 의미하는 변수가 아님
- 중국 신규 AI 모델의 Computing Power 한계. Token 비용 하락이 투자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 CAPEX 증가율 둔화는 당연하지만 리소스 배분이 어디에 집중되는지가 핵심. GPU에서 CPU/DRAM으로 전환이 중요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8월

Top Picks

삼성전자

- 26년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71조원, 영업이익 89.4조원
- DS 사업부 영업이익 89조원으로 추정. DRAM, NAND 모두 예상 보다 높은 가격 상승
- MX 사업부 적자 전환. 원재료 가격 급등 영향
- 1분기 소급 포함, 2분기 계상 상여금은 17조원으로 추정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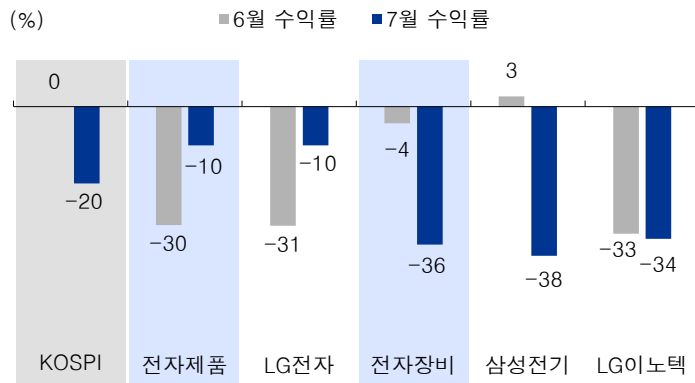
- 26년 2분기 매출액 78.9조원, 영업이익 61조원으로 예상
- 향간에 높아진 2분기 영업이익은 하향 조정 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한 영향
- ADR은 국내 주식 대비 프리미엄 형성 중

IT/가전/전자부품

7월

성과 분석

- 7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10.0%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9.8%p 상회
- 7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35.5%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5.7%p 하회
- LG전자는 NVIDIA와의 AI 협력 기대감에 낙폭 제한적이었으나, 기판 관련주는 시장을 하회하는 수익률 기록. 다만, 6월말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MLCC, 큰 물이 들어온다

- AI 투자 확대 수혜는 MLCC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High End 제품 공급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 수요는 기존 제품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
- 고용량, 고압 제품에 필요 수요 급증. 상대적으로 전장 고객은 물량 확보가 어려움
- High End 단일 제품 수주 공시는 이례적

삼성전기 MLCC 실적 전망



자료: 삼성전기, IBK투자증권

IT/가전/전자부품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8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될 전망. 모바일 관련 부품은 부진할 것
- 가전 비수기 진입. 지난 해 대비 개선될 여지는 높아 보임
- AI 서버 관련 기판 업체들 실적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
- MLCC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AI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이 원인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8월

Top Picks

삼성전기

- 기판 / MLCC가 성장 동력
- 최근 주가는 크게 조정 받았으나 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
- 2028년 기준 영업이익 5조원 가능할 전망
- MLCC가 메모리에 이어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
- 특정 제품에 수요 집중. Capa 잠식 심화될 것
- 공급 능력 제한적. 생산업체도 제한적
- 업계 전반으로 공급 부족은 확산될 것

아모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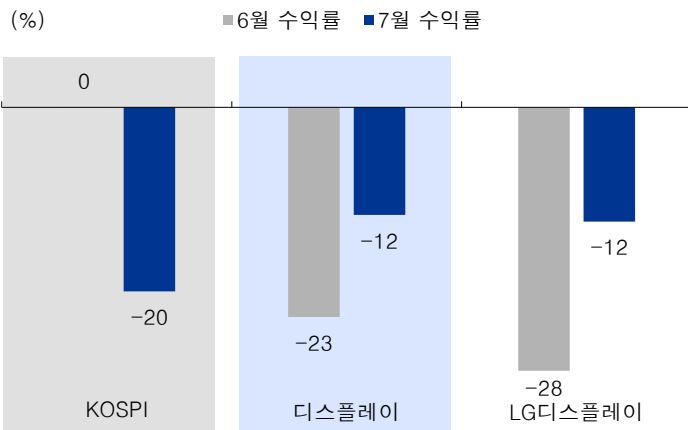
- MLCC가 성장 동력
- 최근 주가는 크게 조정 받았으나 성장 모멘텀은 유효
- 공급 부족 확산될 것
- 고압 제품 공급 능력 보유. 전장보다는 AI에 집중. 전장업체들 공급 부족난 심화될 것
- 광네트워크 수요 급증하는 중(코히런트, 이노라이트)

IT/디스플레이

7월

성과 분석

- 7월 디스플레이 업종 지수는 -11.6%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8.2%p 상회함
-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주가에 반영함
- 애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하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과 성수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점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LG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발표

- LG디스플레이가 7월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함. 매출액 5.6조원(YoY, +0.4%), 영업적자 -1,077억원(적자지속)을 기록
- 구조조정 등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1,467억원)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일회성 비용은 2,400억 원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
- 다만,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나타냄. 1)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조조정 비용의 존재를 공유했고, 2) 현 주가는 고점 대비 45.7% 하락한 수준으로 저가 매수 매력에 부각되었기 때문임

IT/디스플레이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디스플레이 업종은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 북미 Set업체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하이엔드 OLED 출하량 전망치 상승
-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 계절적 성수기 돌입에 따라 계단식 성장이 기대되나,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인한 SET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
-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은 Physical AI 수요 확대에 따른 상승 사이클을 기대 중. 로봇, 자율주행차 등 상용 제품 등장 시 LCD 대비 OLED의 저전력, 유연성 등 차별적 특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8월

Top Picks

덕산네오룩스

- 삼성디스플레이 A6 양산 가동 시작으로 전방 고객사의 생산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
- 북미 최종 고객사의 Foldable, Notebook, Tablet 등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한 OLED 신제품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선익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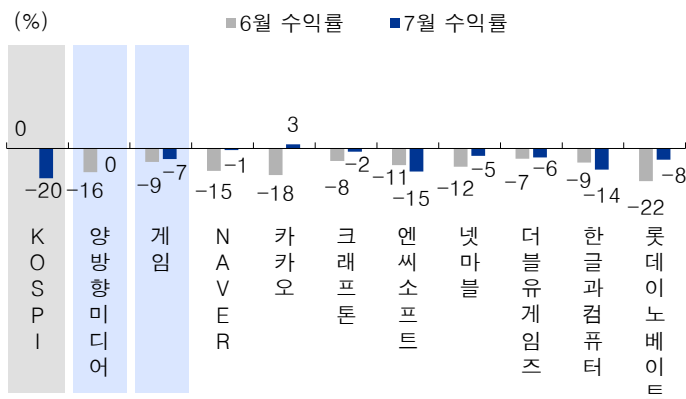
- 특정 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장비사 특징상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OLEDoS 및 대형 증착기 제품의 경쟁력이 실적으로 확인될 예정. 대형 증착기 매출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Q26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전망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타임라인이 다가오면서 관련 장비 매출도 기대감을 키우는 중. 내년 상반기 중 수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AI/인터넷/게임

7월

성과 분석

- 7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0.1%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19.7%p 상회했고, 게임 지수는 -7.1%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12.7%p 상회함
-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AI 관련 사업의 수익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하락함
- 게임 업종은 중동 전쟁의 리스크 재부각으로 인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월 대비 하락함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국내 게임사,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본격화

-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앞세워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주주친화 정책 강화를 통해 게임 업계 전반의 장기 저평가 해소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도모함

국내 주요 게임사의 주주환원 정책 내용

기업	내용
펄어비스	- 창사 이후 처음으로 배당 정책 도입 - 연간 100억원, 순이익의 10% 중 더 큰 금액 현금배당
크래프톤	- 3년간 1조원 이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배당 - 올해 약 995억 규모 현금배당 실시
카카오 게임즈	- 자사주 약 50만주(약 298억원) 소각

자료: 기업 공시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투자증권

AI/인터넷/게임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8월 인터넷 관련 기업은 실적 발표 결과와 AI 수익화 부분 확인이 중요하다. 인터넷 기업의 광고 매출 성장률과 NAVER의 AI팩토리 사업 관련 진전 상황이 관건임. 인터넷 업종은 AI 투자에 대한 매출 전환 시점이 투자 심리의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판단됨
- 게임 산업은 게임스کم 신작 공개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8월 26일부터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کم 2026이 개최 예정임. 게임사들의 신작 모멘텀이 중요함
- 게임 업종은 실적이 이미 견조한 가운데 신작 라인업 공개라는 명확한 카탈리스트를 앞두고 있어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8월

Top Picks

NAVER

-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매출은 견고하지만, GPU 감가상각비, 월드컵 중계료 등의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 7월 AI 브리핑 광고 도입에 따른 광고 매출 성장률이 중요함. 또한 AI팩토리(네오클라우드)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1단계 고객사 및 계약 내용이 중요한 트리거로 판단됨

크래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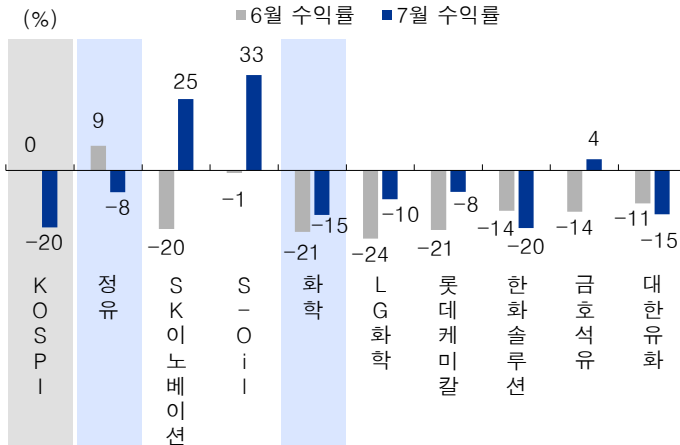
- PUBG의 고성장과 서브노티카2 출시로,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PUBG는 트래픽과 매출 동반 성장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8월 게임스کم 5종 신작 공개(PUBG IP 기반 미공개작 포함)로 신작 기대감이 고조됨. 특히 27년 출시 예정 팰월드 모바일에 대한 시장 기대도 함께 상승함

화학/정유

7월

성과 분석

- 7월 정유 업종지수는 -7.6%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2%p 상회. 이란-미국 전쟁 심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정유제품 수급 타이트에 기인
- 7월 화학 업종지수는 -15.5%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4.3%p 상회. 범용 업체들의 2분기 실적 호조세 전망 때문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정제마진 초강세 지속

- 미국 정제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침
-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정제시설 차질도 추가적인 디젤 공급 부족 야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움직임

- 산업통상부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 4개사가 신청한 여수 1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
- 여수산단 내 중복된 NCC와 범용 제품 설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NCC 생산능력이 연간 139만톤 줄어 213만톤으로 조정 전망
- 정부는 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

화학/정유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8월 화학 업종은 부정적인 래깅 효과 제거로 7월 대비 실적 흐름 개선 전망. 합성수지/합성고무/라텍스 등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 8월 정유 업종은 높은 등/경유 스프레드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또한 등유/경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윤활기유 또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전망. 특히 그룹3 윤활 기유는 경쟁사들의 생산차질로 올해 높은 수익성 유지 예상

8월

Top Picks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사힌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중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롯데정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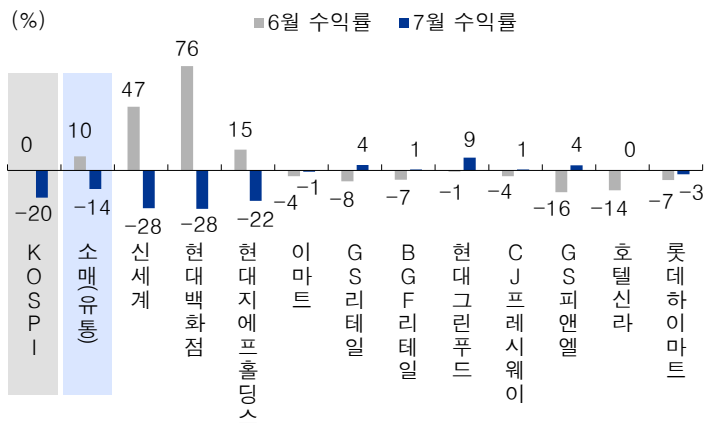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가격 급등세 기록. 동사의 암모니아 사업의 판가 인상에 기여할 전망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유 상품/현금을 고려한 업종 내 차별적인 재무 안정성 지속 전망

유통/식자재

7월

성과 분석

- 7월 유통 업종 지수는 13.6% 하락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약 6.2%p 상회
- 6월은 인바운드 호조,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코스피 대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 7월 또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및 편의점 중심 유통 업체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 코스피 수익률 대체로 상회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장

- 6월 23일 국무총리 회담 내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무비자 입국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언급
- ▶ 다카이치 총리 발언, ▶ 일본 비자 발급 수수료 최대 5배 인상 등 중국인 방일 자제 분위기 속,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 205만 8000명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56.4% 감소
- 한중 관계 개선, 방일 관광객 감소에 따른 반사 효과로 중국 관광수요 확대 빠르게 진행

홈플러스 전국 매장 임시 휴업

-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13일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국 홈플러스 매장 임시 휴업 돌입
-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대출 전액 연대보증으로 메리츠금융그룹 DIP(긴급 운영자금) 2,000억 대출 추진
- 영업 재개의 경우 20일 항고 제출 이후 자금 집행 및 협력업체 복귀 절차 등 고려 시 8월 이후 예상. 다만, 기존 이용객 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유통/식자재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백화점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명품 소비 증가 외에도 전 품목군 매출이 확대되며 마진 믹스 효과 개선 기대
- 면세점 국내 브랜드 적용 기준환율 1,500원으로 상향 및 인바운드 호조에 따른 공항 및 시내 면세점 매출 확대 전망
- 국내 관광 성수기에 돌입하며 내·외국인 여행 수요 확대 예상. 이에 따라 서울 외 주요 지방권 호텔 트래픽 확대
- 한중 항공 운항 횟수 증가로 중국인 방한 수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주요 리테일 업체 및 호텔 업체 실적 성장 이어질 것으로 기대

8월

Top Picks

현대백화점

- 2분기 연결기준 순매출액: 1조 1,953억 원(YoY +10.6%), 영업이익 1,121억 원(YoY +29.0%) 추정
- 1) 백화점 사업부 기존점 성장률 10% 중반 예상, 전 품목군의 고른 성장, 2)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로 시내면세점 수익성 개선, 공항점 DF2 운영에 따른 이익 증가 등
- 지누스 효율화 작업, 백화점 성장세 및 인천공항 면세점 확대 효과, 더현대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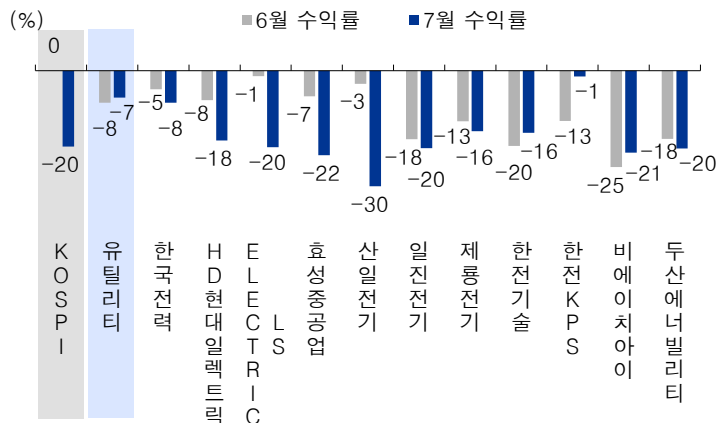
GS피앤엘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675억 원(YoY +49.3%), 영업이익 260억 원(YoY +124.9%) 추정
- 1) 방한 외국인 수요 성장, 2) 웨스틴 파르나스 영업 정상화, 3) 나인트리 OCC 및 ADR 상승, 4) 제주 입도객 증가 및 외국인 수요 확대에 따른 제주 파르나스 실적 회복
- 2분기 방한 외국인 전년대비 +20% 성장 예상. 이에 따라 호텔 수요 증가하며 1분기를 상회하는 투숙률과 객실단가 전망

7월

성과 분석

- 7월 유틸리티 업종은 7.0%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8%p 상회함. AI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뉴욕주가 대형 데이터센터 신규 인허가를 1년간 보류한다는 소식에 AI 관련주 약세 지속됐으나 한국전력 등 일부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함
- 효성중공업, LS ELECTRIC 등 전력기기 대표주들의 낙폭이 컸고, 두산에너지빌리티, 비에이치아이 등 원전 관련주도 약세 흐름이 지속됨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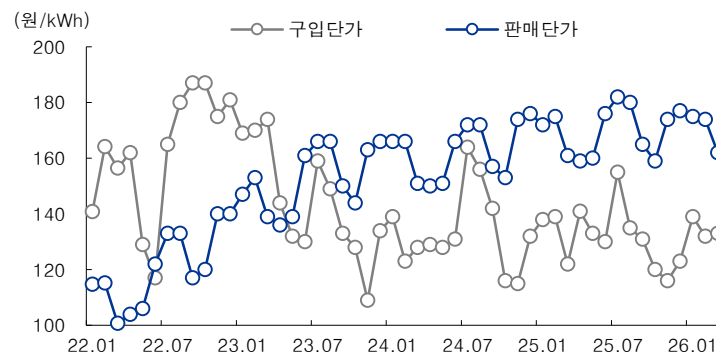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26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 한국전력은 26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kWh로 동결했으며, 가정용은 13분기,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을 유지함
- 최근 연료비를 반영한 적정 조정단가는 -3.4원/kWh였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미조정액을 고려해 상한을 유지
-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피크시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4분기 일부 시간대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한국전력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구입단가 추이



자료: 한국전력, IBK투자증권

유틸리티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전력기기 업종이 4월 급등 이후 3개월간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현재 12개월 선행 PER 기준 밸류에이션이 5월 초 대비 20~30% 낮아진 만큼,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주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도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효성중공업은 미국 최상위 전력망인 765kV급 변압기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고부가 수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
- LS ELECTRIC 역시 고객사 다변화를 바탕으로 미국 데이터센터향 배전반 및 전력기기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DC(직류) 기술력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800V DC 데이터센터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유효함
- HD현대일렉트릭도 연간 수주 가이드를 51.9억 달러로 23% 상향하고 AI 데이터센터향 수주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됨

8월

Top P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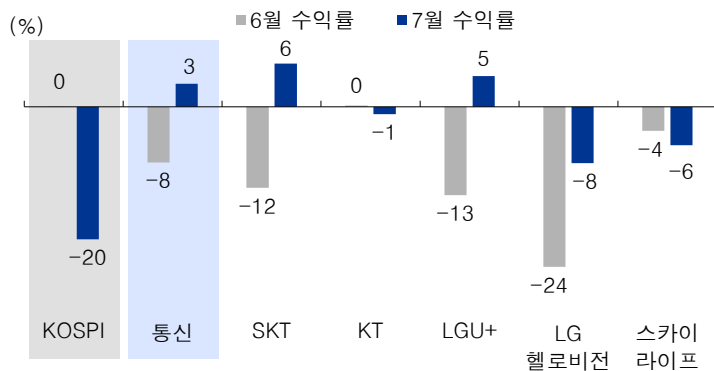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091억원(+25.2% YoY), 영업이익은 3,245억원(+97.6% YoY)으로 전망됨
- 중공업 부문은 1분기 이연 물량(매출 약 1,000억원, 영업이익 약 400억원 규모)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 부문 역시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업이익 22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2Q25: 42억원 적자)할 전망이다
- 차세대 전력기기인 고체변압기(SST)는 단순 전압 변환을 넘어 전력 흐름과 품질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내년 이후 점진적인 성과 가시화가 기대됨

7월

성과 분석

- 7월 통신 업종은 3.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3.2%p 크게 상회함. 시장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6월 하락폭이 컸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상승한 반면, 3사 중 유일하게 6월에 상승한 KT는 1% 하락.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우려를 반영한 결과. SK텔레콤은 엔트로픽 지분 기대감이 지속되며 6% 상승했고, LG 유플러스는 경쟁사 해킹 이슈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인한 실적 기대감으로 5% 상승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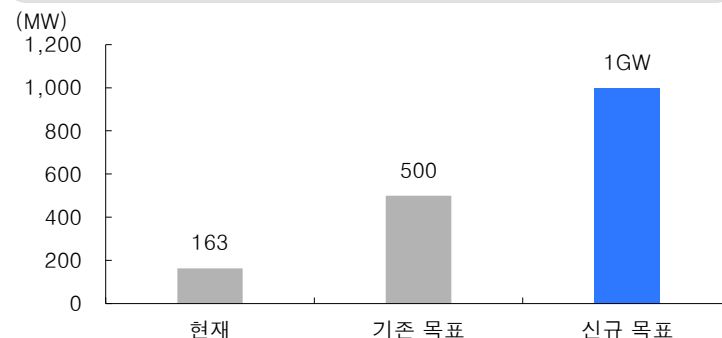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KT 중기 성장 전략 발표

- KT는 3년간 정보보안 및 IT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에 총 12조원 투자하고, 5년간 AX 인프라에 6조원 투자하는 중기 성장 전략 발표
- 분야별로는, 정보보안 및 IT분야에서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체계를 구축할 계획. AX 인프라 분야에서는 AI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트래픽 대응을 위한 해저케이블 용량 90Tbs 확보 예정

KT 데이터센터 용량 및 목표



자료: KT, IBK투자증권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7월에 시장 대비 선방한 만큼, 8월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업종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보안 사고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안정적인 경쟁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영향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둔화됐던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폭이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AI 데이터센터 증설 가속화와 엔비디아 협업을 통한 AI 인프라 사업 확대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강화될 전망

8월

Top Picks

SK텔레콤

- 실적은 2분기부터 보다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날 전망. 지난해 2분기에는 신규 영업정지와 가입자 이탈 영향,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 비용 등이 반영돼 실적 기저가 크게 낮아진 바 있음. 또한 3~4분기에는 요금 할인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이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분기 편안한 이익 회복 흐름이 예상됨
- 1분기에 배당(주당 830원)이 재개됐으며, 올해 실적이 해킹 사고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연간 배당금 역시 2024년 수준(3,540원)으로 정상화될 가능성 높아 보임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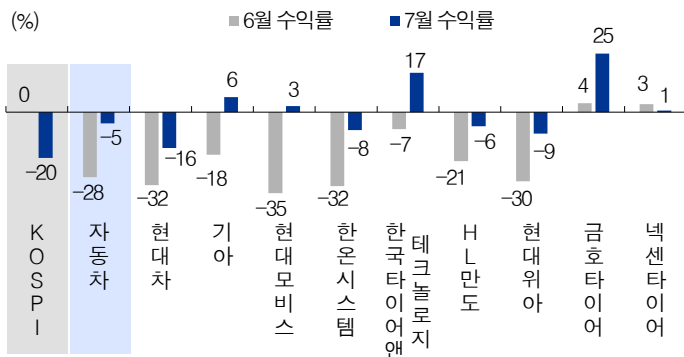
- 1분기에 이어 2~3분기에도 실적 감소가 예상됨. 다만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 또한 전년과 같은 2,400원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환원 정책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자동차

7월

성과 분석

- 7월 자동차 업종은 4.8%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약 15.0%p 상회
-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소식. 13~15일에 이어 20~22일 동안 조별 4시간씩 파업 진행. 누적 매출 손실 7,000억 전망
- 7월 16일 소프트뱅크 BD 보유 지분 9.65% 현대차그룹 인수 추진. 인수 후 HMG글로벌 62.5%, 정의선 회장 25%, 현대글로벌비스 12.5% 지분 재편하며 BD 완전 자회사화. 이후 나스닥 상장 추진 기대감 유효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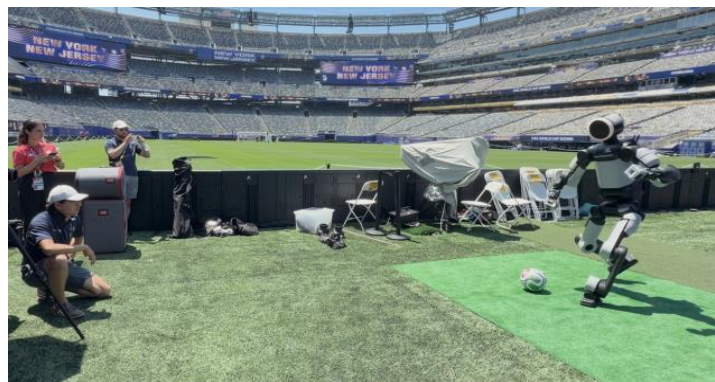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아틀라스, 월드컵 하프타임 퍼포먼스 공개

- BD의 아틀라스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하프타임에서 유명 선수들의 세리머니 재현 및 축구공 전달 퍼포먼스를 공개함
- 기존 연구실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닌 잔디, 폭염, 관중 등 변수가 있는 상황 내에서 로봇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며 실제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 가능성을 입증함. 2028년 현대차 공장 적용을 필두로 향후 가정용 시장까지 진출 계획

BD 아틀라스 경기장 훈련 모습



자료: BD, IBK투자증권

자동차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미국 로보틱스 핵심시설은 3개로 1) 생산: RA(Robotics America), 2) 훈련 RMCA(로봇메타응용센터), 3) 부품: Actuator Manufacturing
- 28년부터 로봇 3만대, 액추에이터 35만개 CAPA 보유 예정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8월

Top Picks

현대차

-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 (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될 로보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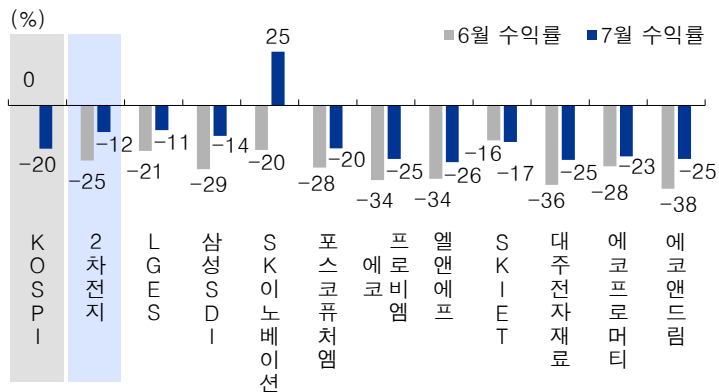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 (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2차전지

7월

성과 분석

- 7월 2차전지 업종은 12.2%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약 7.6%p 상회
-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 BESS 수요 1.4TWh 전망. 미국 내 배터리 공급 부족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체 수혜 예상
- 국내 'AI 활용 배전망 ESS 사업' 1차 공모 완료. 32개 프로젝트 중 삼성SDI 21개, LGES 7개, SK온 4개 수주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7.6% 하락, CATL은 +6.2%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19.9배, 27년 13.2배, 28년 9.7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31.1%, 27년 +43.5%, 28년 +34.7%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N/A	48.0	25.6	19.9	13.2	9.7
삼성SDI	104.2	27.7	19.1	11.0	12.9	10.0
SK이노베이션	14.3	19.8	17.5	12.5	9.2	8.6
CATL	18.5	14.8	12.3	28.9	9.2	7.2
Panasonic	37.9	20.5	16.5	13.9	10.4	8.6
BYD	17.5	13.8	11.6	12.3	5.2	4.0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368.2	137.3	74.7	50.1	41.1	33.5
에코프로비엠	265.6	118.9	67.5	43.3	39.3	27.0
엘앤에프	N/A	53.1	27.3	116.4	16.6	12.9
Umicore	11.7	10.9	9.9	6.7	6.1	5.6
Sumitomo Metal	14.8	9.9	9.7	10.4	12.5	12.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7월 23일 기준

2차전지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드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검색량 79% 증가, 6월 유럽 BEV 판매량은 YoY +37.5% 급등하며 관심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8월

Top Picks

삼성SDI

- 북미향 ESS의 경우 2028년 물량까지 전량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

더블유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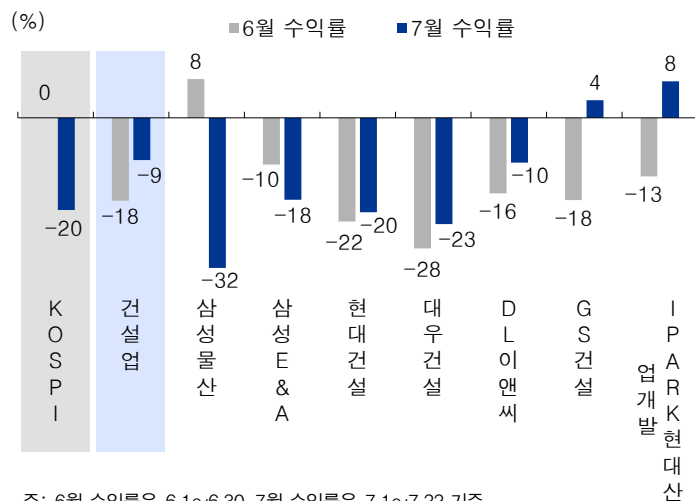
- 2026년 연간 판매량 가이드스 YoY +100% 이상을 제시하며 평균 가동률도 25년 40% 수준에서, 26년 60~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제시
- 북미 ESS향 중심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분리막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은 ESS 50%, EV 30%, 소형전지 20%로, ESS 위주의 높은 성장 기대

건설/부동산

7월

성과 분석

- 7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9.1%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10.7%p 상회
-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발표 등 비주거용 건설 업황 개선 및 성장 기대감 반영으로 코스피 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폭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대한민국 정부 첨단산업 투자 계획 발표

- 정부는 반도체, Physical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발표. 건설업 관점에서 주목할 내용은 투자 규모보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진행 여부에 따른 공사기간과 매출 인식 시점. 서남권 800조 원 프로젝트는 장기 파이프라인 확대 관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신규 부지와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하므로 매출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 반면 용인은 산단 승인과 토지·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이어서 수주와 매출의 조기 가시화 가능성이 높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요 투자사인 삼성전자가 용인 6개 공장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SK하이닉스는 투자 규모를 6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완공 시점을 2033년으로 앞당겼음.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건설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

건설/부동산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5월 비주거용 건설기성액은 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전월 대비 14.1% 증가. 주거용 기성액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과 달리 비주거용 부문만 두 자릿수 반등하며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공사의 매출화 가능성을 높임
- 8월 건설업 투자전략의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와 AI 데이터센터 공사가 실제 건설사 매출 증가로 확인되는지 여부
- 이번 실적시즌에서 첨단산업 매출 증가와 수주잔고 확대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실적 추정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이에 따라 8월에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공사 노출도가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

8월

Top Picks

삼성E&A

- 2026년 첨단산업 수주 전망, 기존 3조 원에서 7조 원 이상으로 상향
- P5 등 그룹사 프로젝트 조기 진행, 삼성전자 FCF 개선으로 향후 2~3년간 수주 지속 가능성 확대
- 그룹사 물량과 중동, CIS, 중남미 가스·LNG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027년 이후 외형 성장 가시화

GS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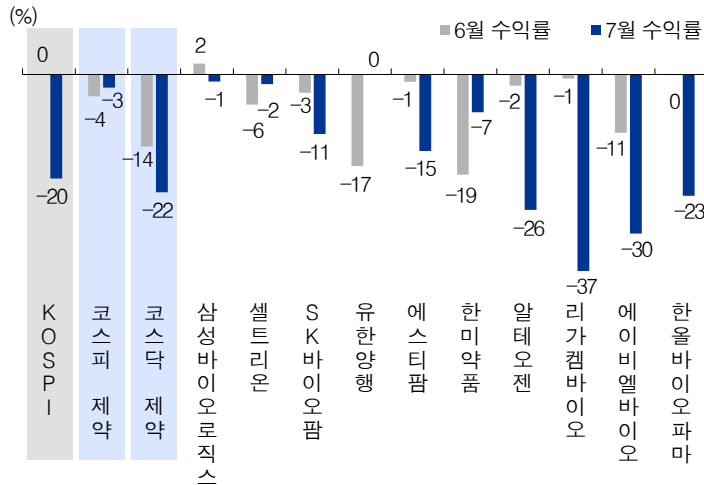
- GS그룹 데이터센터 개발 계획 2.4GW, 2028년까지 1.2GW 준공 및 관련 시공비 약 10조 원 추정
- 데이터센터 수주 이력 21건을 확보한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 주택 중심 포트폴리오의 첨단산업 확장 기대
- 주택 원가율 정상화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및 밸류에이션 동반 개선 전망

제약/바이오

7월

성과 분석

- 7월 코스피 제약 지수는 -2.5%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7.3%p 상회함. 코스닥 제약 지수는 -22.4% 하락하며 코스닥 수익률을 4.4%p 하회함
- 코오롱티슈진, 펩트론, HLB 등 개별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한 노이즈가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투자심리가 악화됨



주: 6월 수익률은 6.1~6.30, 7월 수익률은 7.1~7.22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7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삼성바이오로직스, 2.7조 원 펩타이드 CDMO 인수

- 7월 20일 약 2.7조 원을 투입해 스위스 펩타이드 CDMO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연내 지분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인수를 통해 항체의약품 중심의 사업영역을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확장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만·당뇨 치료제 CDMO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치료제 TG-C 임상 3상 발표

- 7월 20일 골관절염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 이번 결과는 위약군에서 예상보다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 두 번째 임상 3상의 탐라인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 동사는 두 건의 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FDA와 협의해 추가 임상 3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제약/바이오

8월

전망 및 투자전략

7월



8월



9월



- 7월 HLB의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캠렐리주맙' 병용 요법의 FDA 승인 불발과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TG-C도 미국 임상 3상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며 섹터 전반의 경계심리 확대. 다만 두 사례 모두 개별 파이프라인에 국한된 이슈로 산업 전반의 펀더멘털 훼손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9월 세계폐암학회, 유럽당뇨학회를 시작으로 주요 학회와 임상 데이터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기업별 이벤트에 기반한 선별적인 접근 권고

8월

Top Picks

셀트리온

-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 3,000억 원(+35.2% YoY), 영업이익은 4,300억 원(+77.3% YoY) 기록.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매출 확대로 제품 믹스 개선되며 이익률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본격화 되는 가운데 직판 체제 기반으로 산업 변화의 수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스티팜

- 2026년 2분기 올리고 CDMO 신규 수주에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올리고 매출 비중은 78%까지 확대될 전망. 원/달러 상승 효과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규 기전의 HIV-1 치료제 후보물질 STP-0404 임상 2a상 탐라인 결과, 항바이러스 활성 확인. 후속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기술이전 기대. 세부 데이터는 2026년 10월 감염병 학회 IDWeek에서 발표할 것으로 추정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3	95.3
Trading Buy (중립)	6	4
중립	1	0.7
매도	0	0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김예슬	연구원	글로벌 전략	6915-5526	chchu93@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장성호	연구원	조선/기계/운송	6915-5661	cpszoo9080@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유틸리티/통신/방산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화장품/미디어엔터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코스닥 리서치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조은애	연구위원	코스닥 헬스케어	6915-5689	goodkid@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코스닥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코스닥 반도체/장비	6915-5473	kmg@ibks.com
김혜빈	연구원	코스닥 로봇	6915-5669	hyebhinkim@ibks.com
유창근	연구원	코스닥 스몰캡	6915-5655	changsic12@ibks.com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 하는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